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일단 (제 1~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JENESYS2025)'의 일환으로,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젊은 교육 관계자 등 95 명이 6월 3일~11일까지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일행은 테마 '일한국교 정상화 60주년, 일한 교류 발자취 탐방 및 일본 교육현장 시찰' 하에 도쿄도,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을 방문하여 각종 시찰, 일본의 교육 관계자 등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강의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의 교육관계자 총 95명

【방문지】 방일 (도쿄도 95명, 사이타마현 95명, (제 1 단) 도치기현 58명, 군마현 58명, (제 2 단) 이바라키현 37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5월 16일(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6월 3일(화)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6월 4일(수) 【강의】 문부과학성 '일본의 초등중등교육에 대하여'

【예방】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제 1 단) 【시찰】 도쿄도 기타구 방재센터 '지진과학관'

(제 2 단) 【시찰】 이케부쿠로 도민방재센터(방재체험학습)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6월 5일(목) ~6월 11일(수)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제 1 단은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제 2 단은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을 방문

(1) 제 1 단 :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6월 5일(목) 【학교방문·교류】 주오구립 츠키시마제 1 초등학교,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6월 6일(금) 【학교방문·교류】 히다카시립 고마가와초등학교

【예방·강의】 히다카시 교육위원회 '커뮤니티스쿨을 기반으로 한 초중일관교육'

6월 7일(토) 【시찰·강의】 고마신사 '~고마군 건도 1300+10년으로~도래에서 미래로', 도치기현으로 이동

【시찰】 사적 아시카가학교 (일본유산), 군마현으로 이동

6월 8일(일) 【시찰】 도미오카제사장 (세계유산 / 국보), 고토쿠산 미즈사와 관세음, 홈스테이

- 대면식
- 6 월 9 일(월) 종일 홈스테이
- 6 월 10 일(화) 홈스테이 해산식
【예방】 군마현청 ‘군마출신 역대수상에 의한 일한관계 공적과 군마현의 매력에 대하여’, **【시찰】** 쇼와청사(구 군마현 청사) 내 ‘조슈인 재상기념실’, 도쿄도내로 이동, 성과보고회
- 6 월 11 일(수) 나리타국제공항에서 출발
 (2) 제 2 단 :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 6 월 5 일(목) **【학교방문·교류】** 후츄시립제 4 중학교 (모의수업을 포함)
- 6 월 6 일(금) 이바라키현으로 이동
【강의】 일반사단법인 츠쿠바스마트시티협의회 ‘츠크바스마트시티에 대하여’
【학교방문·교류】 이바라키현립 다케조노고등학교 방문 (모의수업 포함), 홈스테이 대면식
- 6 월 7 일(토) 종일 홈스테이
- 6 월 8 일(일) 홈스테이 해산식
【시찰】 츠쿠바우주센터 (JAXA), 지질표본관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6 월 9 일(월) **【예방·강의】** 이바라키현청 ‘이바라키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관련에 대하여’
【시찰】 가이라쿠엔,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 6 월 10 일(화) **【시찰·강의】** 고마신사’~고마군 건군 1300+10 년으로~도래에서 미래로’, 고마가 주택 (국가지정중요문화재), 도쿄도내로 이동, 성과보고회
- 6 월 11 일(수) 나리타국제공항에서 출발

2. 기록사진

| | |
|---|--|
|  |  |
| <p>6 월 3 일 【강의】 문부과학성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에 대하여’</p> | <p>6 월 6 일 【학교방문·교류】 히다카시립 고마초등학교 (한국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모습)</p> |

| | |
|---|--|
|  |  |
| <p>6 월 6 일 【강의】 츠쿠바스마트시티협의회 ‘츠크바스마트시티에 대하여’</p> | <p>6 월 6 일 【학교방문 · 교류】 이바라키현립 다케조노고등학교 방문</p> |
|  |  |
| <p>6 월 7 일 【시찰 · 강의】 고마신사 ‘~고마군 건군 1300 + 10 년으로~도래에서 미래로’</p> | <p>6 월 7 일 【시찰】 사적 아시카가학교 (일본유산)</p> |
|  |  |
| <p>6 월 9 일 【예방 · 강의】 이바라키현청 ‘이바라키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관련에 대하여’</p> | <p>6 월 10 일 【시찰】 군마현청 쇼와청사내 ‘쥬슈인 재상기념실’</p> |

3. 참가자의 감상(발췌)

◆ 한국 교원

이번 시찰과 교류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본의 초등학교를 직접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특히, 츠키시마제 1 초등학교에서의 모의수업과 급식체험은 수업의 운영방식과 생활지도의 세심함에 대해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가와초등학교에서는 대규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운영 실천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과학관’에서는 실제 지진을 체험하고 재해안전교육의 현장에서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신사와 도미오카제사장 등 역사와 문화관련 시찰을 통해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의 가정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장기적인 국제이해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 교원**

일본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수업을 보고 아동과 급식을 같이 먹으면서, 일본어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역사관련 시설 등의 시찰도 좋았는데, 학교방문과 홈스테이와 같이 일본의 일반시민이 보통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거기서 현지의 분들과 만날 기회는 좀처럼 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친절하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한국 교원**

홈스테이에서는 일본의 생활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문화, 불꽃놀이, 도예체험과 신사 등, 우리가 다양한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호스트패밀리가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또한, 츠쿠바시에서는 JAXA 등 일본의 첨단기술과 스마트시티의 대처 등의 응용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 **한국 교원**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실제 일본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의 예의범절과 청소지도까지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현지의 선생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가하는 부활동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여행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장소를 방문하여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국 후, 일본에서 배운 것과 느낀 점들을 수업에 잘 도입하여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췌)

◆ 이바라키현 영업전략부 국제섭외팀 관계자

이번에 이바라키현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한국교정상화 60 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바라키현의 매력과 한국과의 관련'을 테마로 한 강연에서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광자원과 취향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험하신 이바라키의 매력을 부디 주변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본 현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한번 이바라키현을 방문해 주시는 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히다카시 교육위원회

고마군 건군 1300 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 '히다카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수업참관과 모의수업 등 한국의 선생님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유대를 현대로 잇고 또한 미래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커다란 첫걸음으로, 그러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주오구립 츠키시마제 1 초등학교 후지야마 요시히토 교장

방일단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급식을 함께 먹고 함께 교실에서 놀았던 경험은, 아이들에게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한 교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자리는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공부였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교원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세계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한의 교육교류가 더욱더 심화되기를 바랍니다.

◆ 홈스테이 가정 (가사마시)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선생님들이라는 그런지 매우 예의가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관념이나 사람들을 접할 때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져 왔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접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연장자를 존중하고, 스스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해 주셔서, 마지막날 밤은 정말 아쉽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또 만나고 싶다!”고 직전에 외운 일본어로 말해 준 것이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기사 등

| | |
|---|--|
|  <p>도쿄도 기타구 방재센터 지진 과학관**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진 발생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만능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동일본대지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JENESYS #JKCF #NIIED</p> |  <p>..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2025. 6. 5. 화일 학술문화 교원 교류</p> <p>도쿄도 후쿠시 후쿠시킴 제4중학교(다미운 중학교) 방문</p> <p>오전부터 일과 후까지 공일을 머물렀다. 교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안다. 방문한 손님을 경멸할 모서야만다는 의지 같은게 느껴질 정도로 감사했다.</p> <p>오늘 전 KDK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일본 학교의 부활들이 얼마나 활발인지 감탄 놀라면서 눈으로 확인했다. 축구, 농구, 배구, 탁구, 검도, 핸드볼, 육상, 배드민턴, 합창, 타악(?), 미술 등등등 등등등 학생들 모두가 건실이다.</p> |
| <p>2025년 6월 4일 (Instagram)</p> <p>‘지진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빈발하는 나라인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과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를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 <p>2025년 6월 5일 (Instagram)</p> <p>일본의 학교를 방문하여, (중략) 축구와 검도, 미술, 합창 등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 학교의 활기를 실감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점도 있었는데, 정리된 환경과 예의 바른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교직원들과 마음이 풍요로운 학생들을 통해 대단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p> |

2025년도 방일 교원 연수 4일 째다. 맑았다. 오늘은 히타카시립 고마가와 소학교를 견학했다. 어제 견학했던 츠키시마 제1소학교에 비해 형식과 예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로 느껴졌다. 학생들은 조용히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기본 생활 습관도 잘 잡혀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1학년 학생들도 자기 몸만한 양동이를 들고 걸레를 가져다가 복도와 교실을 닦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청소를 귀찮아 하거나 대충하고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찾을 수 없었다. 멋진 학생들이었다.

#JENESYS #JKCF #NIIED



2025년 6월 6일 (Facebook)
 히다카시립 고마가와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략) 학생들은 조용히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습관도 잘 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1학년 학생들도 교실과 복도를 걸레질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귀찮아 하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어 감탄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 (Instagram)
 홈스테이 마지막날은 아침부터 유카타를 입혀 주셔서 기념촬영을 했고, 정성껏 만들어 주신 아침식사를 먹은 후 해산식 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다시 오라'며 안아 주셨습니다. 일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홈스테이 교류였습니다.



2025년 6월 7일 (요미우리신문 이바라키판)
 ‘한국의 젊은 교원 고교시찰’ 한국의 젊은 교원들이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일한 것을 언급하고, 이바라키현립 다케조노 고등학교에서의 모의수업, 일본을 소개하는 그룹워크 참가, 한일 교원에 의한 활발한 의견교환에 대해 소개.



2025년 6월 16일 (이바라키신문)
 ‘한국교원 가사마를 시찰 중치기 및 채소 수확 체험’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젊은 교원들이 일본의 학교현장과 교육시설을 시찰하는 가운데, 가사마 시내에서 홈스테이를 실시, 호스트패밀리와의 교류, 문화체험하는 모습 등에 대해 소개.

| | |
|--|---|
| <p>들기 등 학교문화와 공동체의식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한의 교원 및 아동 간의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방일단 참가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교내공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p>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을 맞이할 준비와, 일본 교원에 대한 인터뷰와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p>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